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은 사람이 6천 년 전에 하나님이었다는 의미

나라는 의식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가 되어야

이 세상에는 학문도 없었고 종교도 없었다고 이 사람이 20년간 외치고 있죠? 학문이라는 것은 사물에 대한 사실을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이 학문이고, 또한 사물에 대한 사실을 바로 말하는 것이 학문이죠? 사물에 대한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는 것은 학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종교도 없었고 그러죠? 종교라는 것은 진리구현이 종교인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몸이 썩어서 흙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죽지 않으면 안 변하는 거죠? 사람이 죽지 않아야 종교지, 죽는 것은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오늘날 종교들은 죄 값으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말은 하지만, 죄가 뭘 줄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죄가 뭘 줄도 모르고 있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나 불경에 기록된 말씀을 바로 알고 있어요, 바로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분명히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기록하신들이 듣고 다니는 성경 속에 썩어 있죠? 그런데 욕심이 죄라고 썩어 있다면 욕심 자체가 욕심부려요, 나라의 의식이 욕심부려요? 나라의 의식이 욕심부려요? 그러니까 욕심이 죄라면 나라의 의식은 뭐예요? 나라의 의식이 죄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고 썩어 있죠? 왜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고 했느냐 하면 죄가 되는 나라의 의식 안에서 생각을 하거나 나라의 의식이 생각하는 대로 행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의 의식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가 되어야 하나님 안에서 행한 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썩어 있죠? 성경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 되는 고로 성경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 되는 고로 사람이 6000년 전에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 성경으로 거듭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 얻는다고 성경에 똑똑하게 써어 있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그런데 예수리는 자가 와서 나를 믿기만 믿으면 다 구원 얻고 천당 간다고 거짓말한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늘나라 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대로 찬송가에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써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나 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하늘나라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없고 사람만 있으면 그게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늘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인지? 이걸 알아야, 몰라요? 이걸 모르죠? 이걸 모르는 게 종교예요? 종교가 아니예요.

또한 이사야서 26장 14절에도 "사람이 죽으면 다시는 살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이 썩어 있는데 영이 떠나간다면 다시 산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떠나간다는 거야, 안 떠나간다는 거야? 영이 죽는다는 소리죠? 마음이 영이라고 성경에 썩어 있어, 안 썩어 있어? 마음이 영이라고 썩어 있는가 하면 잠언서 4장 23절에 가서 보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썩어 있죠?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생명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에 생명이 죽어, 사람이 죽을 때에 몸만 죽어? 생명이 죽기 때문에 몸이 죽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사람의 영이 죽는다는 것을 말한 것인 고로 영이 떠난다는 말은 영의 실체를 알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마음이



구세주 조희성님

14절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거나 기운이 끊어지니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다 소멸되어 영이고 뭐고 없다는 소리예요. 예수가 나타나기 몇 천 년 전에 그런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리는 자는 성경적인 존재예요, 비성경적인 존재예요? 비성경적인 존재죠?

또한 이사야서 26장 14절에도 "사람이 죽으면 다시는 살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이 썩어 있는데 영이 떠나간다면 다시 산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떠나간다는 거야, 안 떠나간다는 거야? 영이 죽는다는 소리죠? 마음이 영이라고 성경에 썩어 있어, 안 썩어 있어? 마음이 영이라고 썩어 있는가 하면 잠언서 4장 23절에 가서 보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썩어 있죠?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생명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에 생명이 죽어, 사람이 죽을 때에 몸만 죽어? 생명이 죽기 때문에 몸이 죽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사람의 영이 죽는다는 것을 말한 것인 고로 영이 떠난다는 말은 영의 실체를 알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마음이

영이라고 성경에 또렷하게 써어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곧 생명의 근원"이라고 잠언서 4장 23절에 썩어 있는 걸 종합해서 보면, 생명이 마음이고, 마음이 곧 영이고, 영이 곧 사람의 생명이라는 소리죠?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곧 생명"이라고 썩어 있어, 안 썩어 있어? 하나님은 곧 생명이라고 썩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생명의 신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쫓나무도 살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죠?

이 세상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논하고 있죠? 원자 하나하나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물질이 형성되고 있는데 원소 속에는 핵이 있고 핵 속에 양성자가 있고? 그 양성자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전자가 뱅뱅 뱅뱅 돌아간다고 과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과학자들은 마이너스 전자가 그냥 돌아간다고 그러죠? 그게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돌아가

는 힘이 있으니까 돌아가지, 그게 어떻게 저절로 돌아가. 그래, 안 그래요? 양성자 자체가 하나님의 신이고로 생명의 물질이죠? 생명의 물질 속에서 생명이 나오죠? 그 생명력에 의해서 마이너스 전자가 돌아간다고 말을 해야 이치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오늘날 첨단과학자들이 이걸 알아? 첨단과학자들이 이걸 몰라요. 아시겠어요?

마이너스 전자가 양성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양성자가 하나님의 신이요, 마이너스 전자가 마귀 영이라고 그랬죠? 마귀 영이 하나님의 신을 가둬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을 가둬놓고 있는 현상이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다 신이야, 신이 아니야? 하나님의 신과 마귀 신의 병존체가 바로 물질이죠? 이런 것을 과학자들이 알아야? 이 세상 학문이 알아야? 그래서 학문이 없다는 거야. 이게 학문의 기본이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이면 누구나 지존자의 아들

사람 자체가 신이예요. 사람의 살이라든지 뼈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물질이죠? 물질이 전부 신이나 사람이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사람이 신이라고 썩어 있어, 안 썩어 있어? 썩어 있죠? 시편 82편 6절에 "너희는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런 말씀이 썩어 있죠? 지존자는 하나님이죠? 이렇게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구약성경은 썩어 있는데 예수리는 자가 와가지고 자기만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에 속아서 진짜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시는 줄 알고 영접을 하고, 환영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 안 많아?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거짓말로 흘리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진짜 구세주가 나와서 마귀의 정체를 하나님의 정체를 바로 논하고 있죠? 그래서 태초에는 하나님의 신

이 빛으로서 온 우주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마귀가 하나님을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하나님을 점령한 순간 아담과 해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담은 남자가 되고 해와는 여자가 되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성경에 써어 있어요? 성경에 안 써어 있어요. 왜 그러하면 성경은 사람이 썼어요. 하나님이 썼어요? 사람이 썼죠? 하나님이 마귀에게 포로가 되는 순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 하는 그 선악과가 바로 마귀의 영이예요. 마귀의 영이 하나님에게 들어와서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가 되는 순간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흙을 밟아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마귀가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흙을 가지고 눈알을 만들 수 있어요? 살은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의 뼈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을 바르게 보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 34장 16절 "여호와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썩어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는 여호와와 입으로 모았음이라." 이렇게 이사야선지가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썩어 있다고 하니 썩어 있는 말은 마귀 말이다, 이 소리죠? 그런데 성경에 흙을 밟아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이 한군데만 있어, 다른 데도 있어? 썩어 되는 말씀이 없죠? 그러니까 그게 마귀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마귀소리죠? 그러므로 마귀가 하나님을 점령해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마귀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종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마귀가 사망의 신인 고로 사망의 신이 주체 영이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은 살다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2001년 6월 6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혁욱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8)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다

(지난호에 이어서)

여호와께서는 강한 어조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께 은총을 입어 당신 눈에 드셨으면,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 백성이 고집이 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지른 죄와 실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너희와 약속을 하자.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든지 또 너희가 어떤 백성들 사이에 있든지 이때까지 없었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할 것이다.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희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과 무슨 계약이든지 맺지 말라. 그 사람들의 제단을 헐고, 그 사람들의 우상을 깨뜨려 버릴지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의 하나님 이외의 어떠한 신도 공경하지 말라. 나의 이름은 질투하는 여호와, 곧 질투하는 신이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내 법대로 나를 예배하지 않으면 아니 되니라."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 동안 떡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고 지냈습니다. 모세가 만들어진 두 돌판에 하나님의 불이 날아와서, 마치 무른 진흙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듯이 십계명을 새겼습니다.

모세는 율법과 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모세이지만 자신의 얼굴에서 빛을 뿜고 있는 것을 물랐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된 원인은 불덩어리로 감람하신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대화하며 오래도

록 대면하였기 때문입니다.

◎ 십계명

1.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라
3. 하나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잊지 말라
5.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죄를 짓지 말라
8. 도둑질을 하지 말라
9.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10. 네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이 하도 밝게 비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였습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모인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

《6장 40년의 광야생활》

(8)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다



광명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림 (출34:29-35)

과 감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부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2년 1월 1일에 하나님의 성막, 곧 회막을 완성하여 봉헌식을 올렸습니다. 그 성막에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과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보

관한 법제도 모셨습니다. 또 법제 곁에 두루마리로 된 율법책을 두었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이스라엘의 장자 단에 의해서 최초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출애굽 이후의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이 구름으로 덮이고 여호와와 영광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피어오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곁에가도 좋다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전진해 갔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가만히 성막을 덮고 있으면 다시 구름이 피어오를 때까지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와 구름이 성막 위에 있

1 요셉의 아들 므낫세는 가나안 말과 애굽어를 사용하는 아버지와 애굽인 어머니로 인하여 2개 국어에 능통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고센으로 가서 살게 된 므낫세는 훗날 모세오경 가운데 창세기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역사서를 이스라엘(야곱)의 장자 단의 도움을 받아 애굽의 신관서체(神官書體)로 파피루스에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라비아반도의 사막 같은 광야에서 행진할 때 성막 위에 나타난 빛을 밝히는 연기구름과 그 구름에 싸인 불덩어리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40장

- 12절: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 13절: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 14절: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겹옷을 입히고
- 15절: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셨더라
-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